

2008. 8. 4 제196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8. 8. 4 제196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일본 홋카이도 다카카와시의 음식폐기물 분쇄기

문화·디자인

1. 문화의 다양성을 즐기는 무료 음악축제 개최 (런던)
2. 상점 외관에 광고지 부착 면적 규제 (텍사스주 댈러스시)
3. 1920년대 현대 건축물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베를린)
4. '노인축제'와 '빅댄스 축제'의 만남 (런던)
5. 버스 디자인 시민 공모제 실시 (런던)

산업·경제

6. '굿 비즈니스' 참가자들이 식료품 46톤 기부 (브라질 쿠리치바시)
7. 관광지의 상업 종사자 대상 무료 영어교육 실시 (상하이)

건강·복지

8. 거리에 서재 설치, '도서 숲' 프로젝트 (베를린)
9. '방학티켓'으로 자유롭게 지역 탐방해요 (베를린)
10. 청소년의 건강 상담소는 온라인 커뮤니티 (뉴욕)

목 차

11. 청소년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공원 심야 프로그램 시행 (로스앤젤레스)
12. 알코올·약물 중독자 상담 프로그램 개선 (베를린)
13. 공공장소 금연 세칙 발표로 식당 금연구역 확대 (북경)

행정·재정

14. 세계도시로서의 면모 갖췄지만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 높아 (런던)
15. 수도 기술 전수할 '전문가 인증제도' 실시 (도쿄)

도시환경

16. 식물이 자라는 친환경 전광판 (뉴욕)
17. 옥상 정원을 늘려라! (뉴욕)
18. 오래된 디젤트럭은 항구 진입 금지 (로스앤젤레스)
19. 투수성 재료로 골목길 재포장 (시카고)
20. 2012년까지 10개 '이산화탄소 저감 지역' 지정 (런던)
21. 모기 밀도 기준치 초과하면 주택관리회사에 벌금 부과 (상하이)
22. '26시간 티켓'으로 '도시 자연의 긴 하루' 체험 (베를린)

도시교통

23.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조성 첫 번째 후보로 선정 (영국 브리스톨市)
24. 혼잡통행료 징수지역 확대에 앞서 공공컨설팅 실시 (런던)

도시계획·주택

25. 민간 기업과 합작으로 육교 보수 공사 (브라질 상파울루市)

[벤치마킹 사례]

일본 홋카이도 다키카와市의 음식폐기물 분쇄기

<주요 내용>

- 일본 홋카이도 다키카와(瀧川)市는, 주방에서 음식폐기물을 분쇄해 하수도로 직접 방류하는 분쇄기 사용을 2006년 4월부터 허용함.
- 일본은 주로 공동주택(맨션: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해당)에 음식물분쇄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합류식 하수도지역이나 하수도시설이 부실한 지역에서는 옥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분쇄기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함.
 - 도쿄都나 오사카 지역에서는 분류식 하수도지역에서도 옥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다키카와市는 일본 본토와 다르게 단독주택에서 음식폐기물 분쇄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드문 지역 중 하나임. 사용 허용시점부터 약 1년 반이 경과한 2007년 말까지 조사한 결과, 분쇄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56곳임.
 - 다키카와市에서도 분쇄기만 설치하면 되는 지역은 분류식 하수관거지역에 한정되며, 市 중심부에 일부 존재하는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에서 분쇄기를 설치할 때는 옥내 오수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
 - 주택(공동주택 포함)을 제외한 음식점이나 음식재료 판매업소 등에서는 음식폐기물 분쇄기를 사용할 수 없음.
- 무분별한 설치로부터 옥내배관과 하수도를 보호하고 수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쇄기 설치 시 市에서 정한 설치절차를 준수해야 함.
 - 분쇄기는 정부에서 승인받은 기종만 가능하고, 市에서 허가받은 공사업자를 통해 설치해야 함.
 - 설치 전에는 계획서를, 설치 후에 완료신고서를 제출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철거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 분쇄기를 설치·사용하는 가구에 월 500엔(약 4700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가구 및 분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와 형평성을 유지함.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12리터짜리 1매에 80엔(약 750원)이고, 분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의 하수도요금은 월 3000엔(약 2만 8000원) 수준임.
- 이상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벌칙을 하수도조례에 명시함.



음식폐기물 분쇄기를 설치한 단독주택 싱크대에 설치된 음식폐기물 분쇄기(좌측이 상부)

<해설 및 평가>

- 시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처리방법 마련
 - 다카카와市는 2003년 8월부터 음식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건립하고 음식폐기물 전용 종량제봉투를 이용해 음식폐기물을 별도 수거하는 체계를 갖춤. 2006년부터는 음식폐기물 분쇄기 사용도 가능하게 함.
 - 음식폐기물 전용봉투 사용만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은 소각, 바이오가스화, 분쇄기 등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음식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음.
- 경제성을 고려해 음식폐기물 처리방법의 변화 모색
 - 다카카와市는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음식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건립해 운영 중이며, 가스발전을 통해 경제적인 운용을 기획했음.

- 하지만 시민이 음식폐기물의 분리배출에 그다지 크게 호응하지 않아 시설 용량의 50% 정도만 가동되고, 충분하게 시설을 활용해도 많은 운영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됨.
- 음식폐기물 분쇄기는 市에서 운영하는 하수도시설과 연계되고, 인구감소로 인해 하수량도 감소하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주목하게 됨.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2007년 서울에서는 하루 3350톤의 음식폐기물이 수거됨.
 - 이 중 17%는 서울 자치구들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83%는 민간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시설로 운반돼 처리되고 있음.
- 시민이 음식폐기물의 분리배출에 어려움을 느끼고, 수거과정에서 도시 미관이 훼손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주부들은 음식폐기물 분리배출을 육아문제 다음으로 힘든 가사노동으로 지적함. 실제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감량기 설치 지원 등 발생원 처리를 공공사업 측면에서 인식하기 시작함.
 - 배출된 음식폐기물은 수거과정에서 침출수를 흘리고 악취를 풍기며 고양이의 공격대상이 되는 등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폐기물의 침출수는 처리비용이 비싸 해양투기를 유발하고,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등 또 다른 환경오염원으로 인식되기도 함.
 - 처리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다시 도시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등 처리시설 건립이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임.

<벤치마킹 시행방안>

- 음식폐기물 분쇄기 도입을 포함한 처리경로의 다양화로 시민의 편의를 보장하고 자원화사업도 유지

- 옥내배관이 양호하고 공공하수관거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하수처리장의 음식폐기물 분쇄오수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주방용 분쇄기 사용을 허용하고, 분쇄기 사용이 어려운 지역은 건조기를 권장함.
- 음식점소나 식품판매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질 좋고 신선한 음식폐기물은 사료·퇴비·에너지 회수와 같은 자원화 방법으로 처리함. 분쇄 음식폐기물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의 잉여슬러지도 자원화 원료로 적극 활용함.
- 분쇄기 사용을 허용할 때는 분쇄기 사용비용 징수, 성능이 보장된 장치 설치와 안정적인 운영,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위한 인증제도, 설치 허가제도, 전문업체에 의한 운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이는 법과 조례에서 보장해야 함.
- 하수도와 같은 공공시설물이 음식폐기물 분쇄기와 같이 시민에게 편리한 도구 사용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도시 정부가 하수도 시설물을 그에 적합하도록 조속하게 정비해야 함. 국가는 시스템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과 사용을 허용하는 법규를 마련해야 함.

<벤치마킹 기대효과>

- 주방이나 옥내에서 음식폐기물을 처리하는 길이 열려 주부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임.
- 하수도 사용료 징수, 무분별한 분쇄기 도입 억제, 하수도에 대한 감시 등 분쇄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도입 여건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음.
- 음식폐기물 분쇄기 도입은 하수도 정비를 촉진할 것이며, 이는 근래의 관심사인 도시 물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임.

/유기영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keeyy@sdi.re.kr)

1. 문화의 다양성을 즐기는 무료 음악축제 개최 (런던)

○ 런던시는 2008년 7월 13일 런던의 다문화사회 정착을 축하하기 위해 런던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무료 음악축제인 '라이즈 축제'(Rise Festival)를 핀스버리 공원에서 개최함.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런던시민이 다문화사회의 활기와 다양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음.
- 힙합, 소울, 록 등 다양한 문화의 기반을 둔 세계 각지의 음악을 약 50개의 연극이 올려지는 5개의 무대에서 함께 공연함.

(www.london.gov.uk/rise)

>>> 전문가 검토의견

- 1996년부터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자 출발한 Rise Festival은 매년 10만 명의 런던시민이 즐기는 여름축제로 발전했음.
- 런던시는 시 전체 인구의 24%가 외국인으로,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정착하고 있음.
- 시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배려뿐 아니라 다문화사회를 통한 문화의 다양성을 런던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함.
- 서울시에 130여 개국 출신 거주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다문화 통합축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각 자치구별로 외국인을 초청한 음식축제나 노래축제 등의 출신 국가별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행사가 외국인을 위로하는 차원의 행정적 행사이며, 잠재된 문화의 다양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한정적 틀에서의 축제 기획에서 벗어나 창조적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 중심이 되어야 함. 서울시민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이 호기심을 갖고 참여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성과 이질성을 포함하는 다문화 축제 개발이 필요함.

/홍석기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khong@sdi.re.kr)

2. 상점 외관에 광고지 부착 면적 규제 (텍사스주 댈러스市)

- 텍사스주 댈러스市 의회는 상점 유리문에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용 포스터나 전단지 등의 부착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킴. 상점 외관에 빼곡하게 붙어 있는 광고물이 주변 환경에 해가 되고 지역 안전에도 위협이 됨에 따라 지역 사회의 낙후를 초래한다는 판단임.

- 조례안에 따르면, 상점의 창문과 유리로 된 출입구에는 최대 20%의 면적에만 광고물을 부착하게 해 밖에서도 상점 내부를 볼 수 있게 함. 상점 벽에는 광고물 부착 면적이 25%를 넘지 않아야 함.

- 위반 시 200달러(약 20만 원)에서 최대 2000달러(2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됨.

- 1년 동안 상점 주인들에게 새로운 법에 대해 교육하고 기존의 광고물을 떼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준 후, 조례안을 실행할 예정임.

(www.planetizen.com/node/33874)

3. 1920년대 현대 건축물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베를린)

- 1920년대에 지어진 현대 건축물인, 베를린市의 6개 주거단지가 2008년 7월 캐나다 퀘벡市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 32번째 회의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됨.

- 지금까지는 중세 고딕양식의 교회나 바로크 시대의 궁 주변 오래된 지역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이 관례였음. 따라서 유네스코가 이번에 내린 결정은 의미가 있음.
- 2006년 1월 베를린市 도시발전의회가 주도적으로 이 주거단지의 가치를 강조해 유네스코에 신청했고, 초기 현대 건축물을 세계문화유산 목록으로 확보하고 보호하려는 유네스코의 최근 정책기조와 일치함으로써 지정됐음.
- 6개의 주거단지는 모두 1913~1931년에 완성된 건물로, 제1차 세계대전 후 부족한 주택을 보충하기 위해 지어진 사회주택 단지의 형태임.
- 당시 아방가르드적 성향의 유명한 건축가들과 실내장식가들이 수준 높게 설계하고 건축했다는 점과, 현재까지 원형을 잘 보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게 평가됐음.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807/nachricht3122.html)

(www.stadtentwicklung.berlin.de/denkmal/denkmale_in_berlin/de/weltkulturerbe/siedlungen/index.shtml)

4. ‘노인축제’와 ‘빅댄스 축제’의 만남 (런던)

- 매년 열리는 ‘노인 축제’(Capital Age Festival)가 2008년에는 ‘빅댄스 축제’(Big Dance Festival)와 연계해 노년층이 즐기는 춤을 중심으로 개최됐음.
- 템스강변 사우스뱅크 센터에서 열린 노인 축제에 사교댄스를 비롯해 다양한 음악·무용 전문가의 공연이 있었음.
- 200여 명의 노년층은 힙합, 클래식 등 4가지 종류의 음악에 맞춘 춤을 지역 복지관 등에서 연습함.

- 사우스뱅크 센터에서 열리는 핵심 공연 외에도 ‘Big Chair Dance’ 프로그램을 런던 전역 12군데에서 동시에 펼쳐지도록 해 가까운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함.

- 빅댄스 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인 ‘Big Chair Dance’에서는 200명 이상의 노인이 전문 안무가와 함께 의자에 앉아 20분간 춤을 선보임.

(www.capitalagefestival.org.uk)

(www.lopsg.org.uk)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7465)

5. 버스 디자인 시민 공모제 실시 (런던)

- 런던시와 교통공사는 런던시를 대표하는 2층 버스(Routemaster)를 21세기에 맞게 현대화해 런던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시장 공약의 일환으로, 시민의 손으로 새로 설계하는 ‘버스 디자인 시민 공모’를 시행함.

- 런던시는 전통적인 버스 디자인을 현대화하는 한편, 시민 참여를 통해 런던의 상징을 되살리는 데 공모 사업의 중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 공모 분야는 버스 디자인 분야(버스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설계 도안과 설계)와 버스 아이디어 분야(버스의 전체 모습이나 일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로 나눠 진행함.

- 아이디어 부문은 공모자를 11세 미만, 11~15세, 16~18세, 18세 이상으로 나눠 연령대별로 심사함.

- 최고 상금은 2만 5000파운드(약 5100만 원)임.

(www.tfl.gov.uk/aneewbusforlondon)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7693)

6. ‘굿 비즈니스’ 참가자들이 식료품 46톤 기부 (브라질 쿠리치바市)

- 쿠리치바市는 창업자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굿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2005년 4월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사회복지기관과 빈민 가정에 46톤가량의 식료품을 기부했음.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자들이 市에서 실시한 다양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받은 데 감사하는 뜻으로 참여함.
- ‘굿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매달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음.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 3년 만에 총 4365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지역마다 50명의 창업자를 교육하고 있음
- 3주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마케팅, 판매, 재정 등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함.
- 2008년부터는 수료자를 대상으로 좀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실시하는 새로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3941)

7. 관광지의 상업 종사자 대상 무료 영어교육 실시 (상하이)

- 상하이市는 2010년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대표적인 관광·상업가인 난징시루(南京西路)의 45세 이하 종업원을 대상으로 무료 영어교육을 실시하기로 함.
- 이곳의 유명한 상점 및 음식점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대체로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낮아, 이곳을 찾는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 이 지역 45세 이하 종업원을 대상으로 무료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회화시험에 응시하도록 의무화함.
- 2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역민 대상 영어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임.

·외국인과의 소통능력 배양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세계 각국 외국인의 문화와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임.

- 市는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를 맞아 25% 이상의 시민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2009년 상반기에는 외국어 교육센터도 건립하기로 함.
- 외국어 교육센터에서는 상업 종사자는 물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녁시간이나 휴일에 영어수업을 무료로 실시할 예정임.

(www.news365.com.cn/wxpd/sh/ja/200806/t20080627_1926397.htm)

건강 · 복지

8. 거리에 서재 설치, ‘도서 숲’ 프로젝트 (베를린)

- ‘도서 숲’(Buecherwald) 프로젝트는, 독일 연방 직업교육 연구원이 산림경영 프로그램의 하나로 발기하고 독일 연방 교육부의 지원 아래 베를린市 건축여성전문가협회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임.
- 이 프로젝트의 첫 성과물로 ‘거리의 열린 서재’ 개막식이 2008년 6월 27일 베를린市 판코우(Pankow)區 콜비츠 거리(Kollwitzstrasse)에서 열렸음.
- 거리에 설치된 책장은 산림경영, 목공, 가구디자인, 인쇄, 서점 경영 등의 분야 직업교육생이 모여 아이디어를 짜고, 한 목재회사가 제공한 나무를 직접 가공해 디자인했음.
-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서교환’(bookcrossing) 프로그램을 팸플릿과 인터넷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시민이 읽지 않는 책을 가져와 꽃게 해 거리에서 첫 열린 서재를 완성함.
- 참여한 직업 교육생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숲-나무-책’의 연결고리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었음.

- 도서 숲 프로젝트는 2008년 UN의 10년 공식 프로젝트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하나로 선정됐음.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806/nachricht3102.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베를린市の 도서 숲 프로젝트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임.
 - 교육생이 직접 나무를 가공해 책장으로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나무와 책, 숲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도 2002년 UN에서 제안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으며, 지역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 간 교류를 하고 있음.
-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차세대 학생들에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향점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한강과 주변 생태 등을 활용한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혜숙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lhsook1@sdi.re.kr)

9. ‘방학티켓’으로 자유롭게 지역 탐방해요 (베를린)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교통연합공사는 학생들이 방학 동안 베를린市와 브란덴부르크州의 모든 공공교통수단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방학티켓’(Schulferienticket)을 제공하기로 함.

- 방학티켓으로 여름방학 기간에 베를린市와 브란덴부르크州의 모든 기차와 전철, 버스 등을 자유롭게 탈 수 있음.
-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자신이 사는 곳에서 좀더 멀리 벗어나 여러 도시를 방학티켓을 이용해 탐방할 수 있음.
 - 하루 동안 오갈 수 있는 거리의 지역 여행계획을 스스로 짤 수 있음.
 - 가족들과 함께 가는 유명한 도시나 먼 휴양지가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와 근처 지역에도 아름다운 볼거리와 배울 자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807/nachricht3113.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교통연합공사가 실시하는 방학티켓은,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학생들 스스로 여행지를 선정해 탐방하는 경험은 자신의 삶을 자치할 수 있는 능력 배양뿐 아니라 여행을 통한 문화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 유의함.
- 서울시도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통티켓 제공을 넘어, 문화시설 이용과 연계된 교통-문화시설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문화체험 및 현장학습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방학용 교통-문화시설 자유이용권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혜숙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lhsook1@sdi.re.kr)

10. 청소년의 건강 상담소는 온라인 커뮤니티 (뉴욕)

- 뉴욕市는 우울증·마약 등 도시생활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에 대한 예방 및 교육과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기로 함.
 - 최근 청소년의 정신과 관련 질환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고등학생 중 약 1/3이 우울함과 무기력한 상태를 매일 느끼고 있고, 약 8%는 자살시도까지 한 것으로 밝혀짐.
 - 11%의 청소년은 이성과 데이트를 할 때 육체적·정신적인 위협을 당한 것으로 알려짐.
 - 뉴욕市는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마이 스페이스’(www.myspace.com) 웹사이트에 ‘NYC Mindspace’라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함.
 - 청소년에게 성교육, 우울증 예방교육, 고민 및 건강 상담, 약물남용에 관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임.
 - 청소년에게 건강 관련 동영상, 전문가 상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건강 상식에 대한 간단한 퀴즈와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이미 청소년 중 93%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그 중 85%는 인터넷 상에서 사회활동(온라인 커뮤니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市 보건국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보건 교육 및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힘.
 - (www.nyc.gov/html/doh/downloads/pdf/survey/survey-2008youthmh.pdf)
 - (www.nyc.gov/html/doh/downloads/pdf/survey/survey-2007teensafety.pdf)

한줄 뉴스

- 로스앤젤레스市, 시청 안에서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일회용 용기 사용 금지

11. 청소년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공원 심야 프로그램 시행 (로스앤젤레스)

○ 일반적으로 무더운 여름에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불량배가 많은 공원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시는 ‘서머 나이트 라이트’(Summer Night Lights)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함.

- 시의 8개 공원에서 청소년에게 스포츠 및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함.
·공원 인근지역에 사는 청소년 80명을 선정해 매주 수·목·금·토요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건전한 활동을 제공해 청소년 범죄를 줄이고자 함.

(www.dailynews.com/breakingnews/ci_9749040)

12. 알코올·약물 중독자 상담 프로그램 개선 (베를린)

○ 베를린 시의회는 2008년 7월 1일 건강·환경·소비자보호위원회가 올린 지역구의 ‘알코올·약물 중독 상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예산 수정안’을 의결함.

- 베를린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알코올·약물 중독자를 위한 지원 및 상담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음. 이번 예산 수정안 의결로 이 프로그램을 한층 더 개선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됨.

- 건강·환경·소비자보호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2007년보다 120만 유로(약 19억 원) 더 많은 1360만 유로(약 216억 원)가 지원되며, 이 예산은 각 지역구의 상황에 따라 각각 차등분배됨.

·예를 들어, 베를린시 노이켈른區는 다른 지역구보다 알코올·약물 중독환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63만 5000유로(약 10억 원)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114만 유로(약 18억 원)를 지원받게 됨.

- 각 지역구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 정신상담사, 사회심리학자들과

전문 병원 및 기타 시설과 연계된 상담소가 각 구청에 설치됨.

·이에 따라 알코올·약물 중독으로 정신적·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됨.

- 이번 예산 수정안 의결을 통해 알코올·약물 중독 환자를 상담·치료하고 지원하는 것을 확대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알코올·약물 남용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7/01/104045/index.html)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4/22/99077/index.html)

13. 공공장소 금연 세칙 발표로 식당 금연구역 확대 (북경)

○ 북경市가 2008년 7월 3일 공공장소 금연세칙을 발표함.

- 북경市는 2008년 5월 1일 정식으로 ‘공공장소 흡연금지 범위에 대한 규정’에서 식당, 여관, 공원 및 유락 장소에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을 각각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음.

·하지만 그동안은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표준이 없었음.

- 이번 금연세칙 공포에 따라, 식당 금연구역 면적이 식당 서비스 구역의 50% 이상이 돼야 함.

·공원 및 유락시설은 흡연구역 면적이 100㎡를 넘을 수 없고, 시설 입구에 흡연 가능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흡연구역이 없어질 때까지 비흡연구역 면적을 확대해 나가야 함.

·호텔, 초대소, 교육센터, 콘도 등 숙식을 서비스하는 장소는 비흡연 객실 수가 전체 객실 수의 50% 미만이어야 함.

- 비흡연지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북경市 공공위생 공익전화 ‘12320’에 전화해 신고할 수 있음.

(zhengwu.beijing.gov.cn/bmfu/bmts/t980725.htm)

행정 · 재정

14. 세계도시로서의 면모 갖췄지만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 높아 (런던)

- 최근 발간된 2008년 통계연감 ‘Focus on London 2008’에 대해 런던시는, 세계도시로서 다양성과 활력이 넘치는 런던시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함. 하지만 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의 비율이 전국 최고라는 결과와 관련해,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인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연감에 따르면, 런던시는 영국 국가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영국 자치구 중 실업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가 런던시에 3곳이나 있음.
 - 기혼여성 취업률(56%)은 전국 평균(69%)을 밑돌며, 빈곤 어린이 비율도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런던시 총 인구수는 750만 명이며, 영국 내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함.
 - 대중교통비 부담률은 195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세이므로, 자가용 이용보다는 대중교통에 중점을 둔 교통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7694)

(www.london.gov.uk/gla/publications/factsandfigures/fol2008)

15. 수도 기술 전수할 ‘전문가 인증제도’ 실시 (도쿄)

- 도쿄都 수도국은 전문 수도(水道) 기술을 보유한 직원이 퇴직하는 시기를 맞아 수도 기술의 확실한 계승을 목표로, 2008년 7월부터 ‘수도 기술 전문가 인증제도’를 실시함.

-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수도 기술 전문가'로 인증해 폭넓게 활용하는 것으로, 효과적으로 기술을 계승하기 위함임.
- 전문가로 인증된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직원들에게 전수함.
 - 직원에게서 받은 업무상 문의에 대해 지도하고 조언함.
 - 경험 및 노하우로 습득한 암묵지(暗黙知:형식을 갖춰 표현되지 못하고 경험과 학습에 의해 몸에 쌓인 지식)를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형식지(形式知: 형식을 갖춰 표현되고 전파와 공유가 가능한 지식)로 구축함.
 - 각 부서의 요청에 따라 각종 검토회 자문위원으로 참가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07/20i73200.htm)

도시 환경

16. 식물이 자라는 친환경 전광판 (뉴욕)

- 토도 디자인(TODO Design)과 다스 스튜디오(Das Studio)의 공동 디자인 작품인 친환경 전광판 '가든 스팟'(Garden Spots)이 IDA(International Design Award)에서 주최한 '2007 Land & Sea Competition'에서 1등을 차지함.
- 친환경 전광판의 기본 디자인 원리는 원통형의 식재 모듈을 광고가 없는 전광판 뒷면에 설치해 공중에서 식물을 기르는 것임.
 - 태양광 발전 기술과 전광판 기둥을 따라 식물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최소화하는 자체유지 시스템으로 디자인됨.
 - 친환경 전광판을 통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보행자의 시각적인 환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친환경 전광판

(www.treehugger.com/files/2008/06/garden_billboards_nyc.php)

>>> 전문가 검토의견

- 친환경 전광판은 디자인 측면에서는 새롭고 참신한 시도이나 설치·운영 사례가 없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았고, 설치 지역의 여건에 따라 전광판의 효용성이 다르기 때문에 뉴욕市에서도 도시계획에 전체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또한 전광판 주변에서 기를 수 있는 식물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저감효과 등 환경관리적인 측면보다는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접근해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의 경우, 서울광장 등 상징성이 있는 공간이나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일부 적용해 볼 수 있음.
- 전광판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이 이러한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기본 모델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송인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injusong@sdi.re.kr)

17. 옥상 정원을 늘려라! (뉴욕)

- 뉴욕市는 최근 옥상 녹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옥상 녹화에 있어 선진 도시들을 추격하려는 발판을 마련함.
- 뉴욕市의 환경단체인 'Earthpledge'에 따르면, 뉴욕市에는 현재 50여 개의 옥상 정원이 있으나 이는 시카고市의 옥상 녹화율에 비해 여전히 부족함.

- 뉴욕市 로어 이스트사이드(Lower East Side)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민자나 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이었으나 최근에 젊은 학생들과 예술가, 전문직 종사자들이 모여면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지역임. 이곳의 청소년 여성 센터(The Lower East Side Girls Club)가 건물 두 곳에 옥상정원을 조성할 계획임. 특히 이 중 정원 한 곳에는 다양한 채소를 재배해 관내 카페에서 조리 시 사용할 예정임.

(www.inhabitat.com/2005/11/18/gotham-green-roofs)

>>> 전문가 검토의견

- 뉴욕市와 같이 고밀·집약 도시는 녹화하기 위한 가용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심의 삭막함을 해소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옥상 공원화가 필수불가결함. 따라서 뒤늦게라도 옥상 녹화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함. 특히 도심부의 건물 가운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술회관이나 청소년센터 등을 녹화함으로써 공원처럼 이용하고 도시농업도 가능하게 하면, 도시민에게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음.
-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는 옥상 공원화 사업을 민선4기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남산 주변 도심부의 건물을 녹화함으로써 도심 내 공원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옥상 녹화 신청자에 대한 교육, 공사 가능성 진단, 지원비 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도 펼치고 있음.
- 도시 중심의 녹화사업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뉴욕市와 같이 운동 차원으로 발전시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로 이끌어 가야 할 것임.
 - 주민센터 같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 등의 옥상을 적극 녹화해 가는 것이 시민의 이용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임.

/김원주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wjkim@sdi.re.kr)

18. 오래된 디젤트럭은 항구 진입 금지 (로스앤젤레스)

- 2008년 6월 26일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롱비치 항구에서 운행되는 오래된 디젤트럭을 깨끗하게 연소되는 모델로 교체하는 ‘클린 트럭 법안’에 서명함. 법안이 시행되면 2008년 10월 1일부터는 1989년 이전에 생산된 디젤트럭은 항구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됨.
 - 배출된 유해가스에 의해 항구 근처에 사는 1200여 종의 동식물의 생명이 단축되는 상황임.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항구의 디젤트럭 가스 배출량의 80%를 감소시킬 수 있음.
 - 법안이 시행되면 트럭운전자는 개별사업자로서 화물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고, 회사에 소속돼 회사 차량만 운행해야 함.

(www.labusinessjournal.com/article.asp?aID=58748372.320538.1646775.395728.1207805.531&aID2=126666)

19. 투수성 재료로 골목길 재포장 (시카고)

- 시카고市 교통국은 1만 3000여 개의 골목길을 투수콘(Permeable Concrete)으로 다시 포장하는 ‘Green Alley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기존의 골목길은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지 않는 불침투성 도로로, 별도의 집수 시스템인 우수 하수관(Storm Sewer)에 연결되지 않았음.
 - 이로 인해 비가 올 경우 도로에 수막현상이 생기고 인접한 건물 지하에 홍수가 나기도 함.
 - 시카고市는 투수성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석(Paving Stone) 등 친환경 재료를 이용해 골목길을 다시 포장하고 있음.

·이러한 재질은 도시의 열섬현상 방지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비가 올 경우 표면에 있던 물이 스며들면서 대수층(Aquifer)으로 가기 전에 정화가 된 후 미시간 호수로 흘러가게 됨.

- 시카고市는 매년 약 38억 리터의 물을 미시간 호수에서 공급해오는 데 반해 1%의 빗물만이 미시간 호수로 흘러들어가고 있음. 이번 포장공사를 통해 우수 재활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www.cnn.com/2008/TECH/biztech/06/27/green.concrete/index.html)

20. 2012년까지 10개 ‘이산화탄소 저감 지역’ 지정 (런던)

- 런던市는 2025년까지 런던市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까지 줄여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2년까지 10개 지역을 ‘이산화탄소 저감 지역’(Low Carbon Zones)으로 지정할 계획임.

- 이산화탄소 저감 지역은 지역 커뮤니티와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사용과 비용을 줄이게 됨.

·현재 런던市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75% 이상이 가정에서 나오고 있어 이산화탄소 저감 지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함.

- 주요 사업내용은 가정주택에 단열재 설비, 상가에 에너지 절약장치 설치,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운영 등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7673)

21. 모기 밀도 기준치 초과하면 주택관리회사에 벌금 부과 (상하이)

- 상하이市는 2008년 6월 23일부터 모기 퇴치를 위해 고층빌딩, 공사현장, 시민 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모기 밀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예년보다 잦은 호우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형성되면서 모기 서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

·2008년 5월 모기 유충 산란율이 2007년 동기 대비 32% 상승함.

- 주거지역의 모기 밀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주택관리회사에 최고 5000 위엔(약 7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임.

·이는 주민이 납부하는 주택관리 비용 항목에 환경정화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이번 벌금부과 조치는 물웅덩이 제거 및 해충 방역을 의무화해 여름철 모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함임.

(www.news365.com.cn/wxpd/sh/shdh/200806/t20080624_1922292.htm?from=814e.com)

22. ‘26시간 티켓’으로 ‘도시 자연의 긴 하루’ 체험 (베를린)

○ 베를린市 자연보호재단은 2008년 7월 5일 제2회 ‘도시 자연의 긴 하루’(Lange Tag der StadtNatur) 행사를 개최함.

- ‘26시간 티켓’을 구입한 시민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6시간 동안 베를린市의 142곳에서 열리는 450여 가지의 다양한 자연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었음.

·공원 산책, 허브와 곤충 찾기, 별밤에 보트타기, 새벽에 호수에서 조류 탐방하기 등 베를린市의 자연을 새롭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었음.

- 이 행사는 시민에게 베를린市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풍부함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도시의 자연 보전과 보호에 대한 시민 의식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이 행사에 참가한 많은 전문가들은 베를린市를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메트로폴’(Metropole der Naturschönen)이라고 표현함.

(www.berlin.de/kultur-und-tickets/events/langer_tag_stadtnatur)

도 시 교 통

23.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조성 첫 번째 후보로 선정 (영국 브리스틀市)

○ 영국 교통부는 1개 대도시와 10여 개 소도시, 또는 도심 구역을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총 1억 파운드(약 2010억 원)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함. 예산투입 첫 번째 대상 도시로 브리스틀市가 선정됨.

- 브리스틀市는 선정 과정에서 맨체스터市와 레스터市 등 대도시와 경쟁을 벌였으나, 인근 지역인 글로스터셔州와 파트너십을 맺고 제출한 ‘자전거 도시 만들기 계획’이 강점으로 작용해 최종 선발됐음.

·브리스틀市의 자전거 도시 만들기 계획에는 파리市에서 시행된 자전거 대여제도 도입,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자전거 무료 제공, 도심부에 최첨단 세면장과 보관소 설치, 도심과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 지정,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훈련 확대 등이 포함됨.

- 브리스틀市는 정부 지원을 유치함으로써 강변 및 해안 등 수변공간에 자전거 도로를 개발하고, 인근 관광명소인 바스市와 자전거 여행경로 설비를 개선하는 등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설 계획임.

(www.guardian.co.uk/environment/2008/jun/20/travelandtransport.ethicalliving)

(www.guardian.co.uk/politics/2008/jun/19/transport.transport1)

24. 혼잡통행료 징수지역 확대에 앞서 공공컨설팅 실시 (런던)

- 런던시장은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을 런던市 서쪽 지역인 켄싱턴-첼시-웨스트민스터 지역(Kensington-Chelsea-Westminster)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5주 동안의 공공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공공컨설팅 기간에 시민은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런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은 혼잡통행료 징수지역 주민과 상인,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의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을 점점 확장해야 하고, 이는 해당 지역 주민과 상인에게 중요한 현안이므로 공공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임.

(www.london.gov.uk/mayors_daily_issue_archive.jsp)

도시계획.주택

한줄 뉴스

25. 민간 기업과 합작으로 육교 보수 공사 (브라질 상파울루市)

<상하이>

- 브랜드에 관계없이 모든 가전제품의 A/S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통합 콜

- 상하이시는 민간기업과 합작해 대대적인 육교 보수공사를 시작함. 2003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총 60여 개 공원에서 연화 251필을 복구할 예정임. 상파울루는 2008년 9월까지만 60여 개 공원에서 연화 251필을 복구할 예정임.

공사와 동일한 차원에서 시내 육교 보수공사도 진행할 계획임.

- 현재 상파울루 시내에 총 78개의 육교가 있으며, 이 중 4개 육교가 정부-민간 합작으로 보수공사를 시작함.
- 우니방코(Unibanco) 은행에서 에우세비오 마토조 거리에 있는 육교를 보수공사하기로 함. 합작계약은 36개월이고, 육교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와 주변 환경정리 등은 은행에서 해야 함. 대신 우니방꼬 은행은 육교 기둥에 3개의 은행 광고를 할 수 있음.
- 엘도라도 쇼핑센터도 육교 보수공사에 합류하기로 결정함. 엘도라도 쇼핑센터는 근처 육교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계획임.
- 핑네이로스 구청은 산탄데르 은행과 함께 주세리노 쿠비츠체그 거리에 있는 육교 보수 공사 합작을 체결함. 산탄데르 은행에서 육교 주변환경 정리와 관리를 맡음.
- 콩고야스 공항 육교는 정부-민간 합작으로 보수공사를 추진 중임. 시장 부임 후 지금까지 845건의 정부 민간 합작 공사가 진행됐음. 2008년 초에는 방꼬 헤알 은행에서 이비라푸에라 공원의 교통신호시스템을 설치하기도 함.

(www.prefeitura.sp.gov.br/portal/a_cidade/noticias/index.php)

한줄 뉴스

<브라질>

- 리우데자네이루市, 출소자들의 사회 적응 및 자립을 돕는 ‘출소인 자립 프로그램’ 실시로 1700여 명 후원
- 쿠리치바市, 2008년 말까지 시내버스 800여 대를 친환경 버스로 교체